

## 호스피스·완화의료 교육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영적안녕감 및 사전의료의향서 지식에 미치는 효과

김인숙, 장선희\*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 The Effects of Hospice & Palliative Care Education Program on Spiritual Well-Being and Knowledge Regarding Advance Directives of Nursing Students

In Sook Kim, Sun Hee Jang\*

Department of Nursing, Changshi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 교육이 영적 안녕감과 사전의료의향서 지식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하여 실시되었으며,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의 유사실험 연구이다. 자료수집은 2018년 09월에서 12월까지 C시에 소재한 일개대학의 간호대학생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실험군은 22명, 대조군은 27명이었다. 실험군은 호스피스 총론 교과목을 수강 신청한 3학년 학생 중에서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대조군은 수강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 중에서 참여의사를 밝힌 학생으로 구성되었다. 실험군은 주 1회 120분씩 7주 동안 총 14시간의 정규 교과목을 통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 교육을 제공받았다. 자료분석은 SPSS/WIN 21.0 Program을 이용하였으며 Chi-square test, Fisher's exact test, independent t-test, paired t-test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영적 안녕감은 유의한 증가를 보였고( $t=2.80, p=.009$ ), 사전의료의향서 지식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1.33, p=.190$ ).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적용한 호스피스완화의료 교육은 간호대학생의 영적 안녕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중재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hospice & palliative care education programs for nursing students, in terms of spiritual well-being and knowledge concerning advance directives. This is a quasi-experimental study of non-equivalent control groups, and includes a pre-test and post-test design. Data was collected between September to December 2018, enrolling third grade nursing college students attending a university in C city: 22 subjects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27 subjects in the control group. The experimental group was provided the education as a regular subject, 2 hours a week for 7 weeks, for a total of 14 hours. Ed. Notes: I suggest you maintain any one unit for mentioning time. Hence, I changed 120 mins to 2 hours. Data were analyzed by X2 test, Fisher's exact, t-test, independent t-test, and paired t-test, using the SPSS 21.0 program. After attending the program, spiritual well-being showed a significant increase ( $t=2.80, p=0.009$ ).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in knowledge regarding advance directives ( $t=1.33, p=0.190$ ). Our results indicate that the hospice & palliative care education program helps nursing students improve their score of spiritual well-being. We believe that these results contribute basic data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hospice-palliative care curriculum.

**Keywords** : Palliative Care, Education, Students, Nursing, Spirituality, Advance Directives

본 논문은 창신대학교 연구과제로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Sun-Hee Jang(Changshin Univ.)

email: jshna0625@naver.com

Received August 23, 2019

Revised September 16, 2019

Accepted January 3, 2020

Published January 31, 2020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첨단 의료기술의 발전과 함께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게 되면서, 인간으로서의 삶의 질과 삶의 의미를 고려한 생명유지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었다[1].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에서 2013년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와 대책을 발표하였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2016년에 제정되면서 호스피스완화의료의 토대가 마련되었다[2]. 이와 같이 사회적 요구와 정책의 변화로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이용률은 2008년 7.3%에서 2016년에는 17.5%로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요양병원 시범사업 후 본격적인 확대 이후에는 호스피스완화의료인의 수요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3]. 그러나 대다수의 간호대학생이나 간호사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 환자나 가족에 대한 사전 돌봄교육, 죽음에 대한 인식과 철학의 정립없이 호스피스병동에 배치됨에 따라 자신의 역할과 업무에서 오는 당혹감, 무력감 및 부적응 등 심리·영적인 문제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4] 체계적인 호스피스 완화간호 교육의 확대는 요구되어지고 있다.

인간은 눈앞에 다가온 죽음상황을 인식하게 되면 심리적 혼란과 영적 고뇌를 경험하게 된다[5]. 참기 어려운 신체적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에 있는 호스피스대상자에게 영적간호는 총체적 고통 측면에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6]. 영적간호 수행은 자신을 도구로 활용하기에 무엇보다도 돌봄자 자신의 영적 안녕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7].

영적 안녕감은 인간의 본성인 영성을 최대한 개발시키는 능력이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절대자인 신 또는 자신, 이웃, 환경과의 관계에서 조화된 삶을 영위하는 개념이다[8]. 간호돌봄 대상자이자 제공자인 인간은 신체, 심리, 사회, 영적으로 통합된 존재로 영적인 안녕이 높을수록 자신의 삶이 가지는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고 발견할 수 있으며, 내적인 평화와 조화를 통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1]. 따라서 간호대학생은 호스피스 대상자의 영적 요구에 대한 간호를 위해 죽음과 관련된 대상자의 관습과 신념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함으로 자신의 영적안녕 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9].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법은 삶의 질이 반영된 것으로 사람답게 죽을 수 있는 권리를 처음으로 표명한 법이다.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을 임종 기간

만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전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성인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예상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본인이 문서로 직접 작성하는 것이다[11]. 그러나 법 시행 기간이 짧고 홍보의 부족으로 여전히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10]. 사전의료의향서의 정착을 위해서는 사전의료의향서가 어떤 내용을 포함하며 어떤 법적 효력을 가지는지 등의 정확한 정보를 예비 의료인으로서 간호대학생은 우선 인지할 필요가 있다[12].

지금까지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호스피스 교육이나 죽음준비교육은 성인[13], 노인[14], 대학생[15,16]을 중심으로 연구되었고,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는 호스피스완화의료와 관련된 교육을 통해 죽음 태도[17], 호스피스 인식[12], 삶의 의미[18]와 임종간호태도[17]에 대한 효과검증 연구가 있지만 사전의료의향서 지식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개정된 연명의료결정법과 향후 개정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한 이해[2]와 말기진단 및 임종과정에 대한 개념의 명확한 인식을 돕는 교육은 간호대학생이 호스피스완화医료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이 제도를 홍보함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 교육이 영적 안녕감과 사전의료의향서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함과 동시에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죽음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해야 하는 간호대학생에게 호스피스완화의료 교육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시도하였다.

###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호스피스완화의료 교육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영적 안녕감 및 사전의료의향서 지식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호스피스완화의료 교육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영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 호스피스완화의료 교육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사전의료의향서 지식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 2. 연구 방법

### 2.1 연구 설계

Table 1. Hospice & Palliative Care Education Program

Session	Theme	Contents & method	Hours
1	overview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efinition and philosophy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li> <li>• Hospice activity content</li> <li>• Hospice/palliative care team</li> </ul>	2
2	Understanding the meaning of life and death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nderstanding of the meaning of life and death</li> <li>• Definition and attitude of death</li> <li>• Bucket list</li> </ul>	2
3	Hospice & palliative care for pain contr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otal pain of hospice patients</li> <li>• Management of pain: Drug and non-drug approaches</li> </ul>	2
4	Hospice & palliative care for physical symptom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anagement of physical symptoms</li> <li>: Drug and non-drug approaches</li> </ul>	2
5	Psychological, Social and Spiritual ca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ssessment of the total pain</li> <li>• Psychosocial process of hospice patients</li> <li>• Spiritual well-being and spiritual care for hospice patients</li> </ul>	2
6	Communication with the hospice patie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ommunication with the hospice patients</li> <li>• Communication skills at the hospice place</li> </ul>	2
7	Hospice & palliative care ethic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nderstanding DNR(do not resuscitate), suicide, and euthanasia</li> <li>• Plan of the hospice/palliative care and dying patient's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act</li> <li>• Advance directives</li> </ul>	2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에게 적용한 호스피스완화의료 교육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의 유사실험 연구이다.

## 2.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C시에 소재하고 있는 C대학교 간호학과 3학년으로 표본의 크기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대응표본 t-검정 분석에서 검정력(1-β)=.80, 유의수준(α)=.05, 효과크기(d)=.5로 계산하였다. 그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은 각각 26명이었으며 중도탈락률 10%를 고려하여 총 60명을 모집 공고하였다. 실험군은 호스피스 총론 교과목을 신청한 학생 중에서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듣고 동의서에 서명한 24명이었고 대조군은 호스피스 총론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는 학생 중 29명이 지원하였다. 그 중 불성실하게 답변한 4명을 제외한 최종적인 연구대상자는 실험군 22명, 대조군 27명이었다. 그리고 연구대상자의 제외기준은 사전에 죽음준비교육을 비롯하여 의미요법, 명상프로그램, 영적간호, 호스피스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험이 있는 간호대학생이다.

## 2.3 호스피스완화의료 교육프로그램

본 연구는 일개 시에 있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주 1회 2시간씩 7주 동안 총 14시간의 호스피스완화의료 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 교육프로그램은 호스피스완화의료 개요, 삶의 의미와 죽음에 대한 이해, 호스피스 대상자의 통증관리, 호스피스 대상자의 신체증상관리, 심리·사회·영적 돌봄, 의사소통, 호스피스

완화의료 윤리로 구성되었다(Table 1). 본 연구의 교육 프로그램은 선행연구[8,13,16]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및 교재[22]를 토대로 구성되었고, 프로그램의 구성 및 내용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다년간 호스피스병동에 근무한 수간호사 1인, 호스피스전문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한 간호학교수 2인에게 자문을 받았다. 교육주제에 따른 구성 요소는 1회기에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정의 및 철학, 호스피스 활동 내용, 호스피스완화의료 팀에 대한 개요, 2회기는 삶과 죽음에 대한 이해, 3회기는 호스피스 환자의 총체적 고통, 통증관리, 4회기는 신체적 증상관리, 5회기는 총체적 고통 사정, 호스피스 환자의 심리사회적 과정, 영성의 개념, 영적요구, 영적 고통, 영적 진단, 영적 안녕과 영적 돌봄, 6회기는 호스피스 환자와의 의사소통, 7회기는 DNR, 자살, 안락사에 대한 이해, 호스피스완화의료 돌봄계획 및 연명의료결정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구성되었다.

## 2.4 연구도구

### 2.4.1 영적 안녕감

영적 안녕감은 Paloutzian과 Ellison[20]이 개발한 영적안녕 척도를 Choi[21]이 번역하여 Kang[22]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긍정적인 문항 12개 문항, 부정적인 문항 8개 문항으로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Likert 척도이다. 초월적 영성과 실존적 영성 등 2개의 하부영역으로 되어 있으며 각각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영적 안녕감 점수는 초월적 영성과 실존적 영성을 포함한 점수이며 점수

가 높을수록 영적 안녕 상태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93$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3$ 이다.

#### 2.4.2 사전의료의향서 지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식이란 개인이 연명의료중단의 결정과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직접 작성하는 문서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식을 말한다[10]. 본 연구에서는 Hong & Kim[23]이 개발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문서관련 지식을 측정하는 도구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KR-20 (Kuder- Richardson Formula 20)=.92, 본 연구에서는 .74이었다.

#### 2.5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8년 09월 20일에서 12월 7일까지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에 연구대상자들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C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로부터 승인을 받았다(IRB No: CSIRB - 2018026).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연구방법 및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과 개인정보 비밀보장 등을 설명한 후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았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전조사는 교육 개시 전에 시행하였고, 호스피스완화의료 교육프로그램은 실험군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대조군은 사후조사 후 원하는 대상자에게 호스피스완화의료 교육프로그램에서 사용된 자료를 제공하였다. 사후조사는 교육프로그램을 종료한 후 자가 보고 설문지로 모든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지 작성시간은 10-15분 정도 소요되었고, 실험군은 연구보조원이 교육현장에서 직접 회수하였으며, 대조군은 교육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설문지를 배부받아 1주일 내로 연구보조원에게 직접 제출하는 방식으로 수집되었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전조사는 일반적 특성, 영적 안녕감과 사전의료의향서 지식을 측정하였고, 사후 조사는 영적 안녕감과 사전의료의향서 지식을 측정하였으며, 연구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증정하였다.

#### 2.6 자료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Program을 이용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

편차로 분석하였다.

- 2)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 동질성 검정은 Chi-square test, Fisher's exact test로 분석하였다.
- 3) 실험 전 종속변수의 동질성 검증은 independent t-test를 실시하였다.
- 4) 프로그램이 대조군과 실험군의 영적 안녕감 및 사전의료의향서 지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paired t-test를 사용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동질성 검정

일반적 특성에서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성별, 나이, 인지하는 건강상태, 종교 유무, 직계가족 및 지인을 포함한 사별경험은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어 동질성이 검정되었고, 종속변수인 영적 안녕감(영적 안녕감( $t=1.53, p=.136$ ))과 사전의료의향서 지식(사전의료의향서 지식( $t=-0.70, p=.489$ ))에서도 실험군과 대조군간 동질성이 검정되었다(Table 2).

#### 3.2 호스피스완화의료 교육프로그램의 효과검정

실험군과 대조군의 중재 전과 후의 영적 안녕감과 사전의료의향서 지식의 변화를 분석하였다(Table 3). 영적 안녕감 점수는 실험군에서 중재 전 2.54점에서 중재 후 2.64점으로 증가하였고, 대조군은 중재 전 2.46점에서 중재 후 2.50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집단 간의 사전-사후 영적 안녕감의 점수변화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2.80, p=.009$ ).

사전의료의향서 지식 점수는 실험군에서 중재 전 7.20점에서 중재 후 7.61점으로 증가하였고, 대조군은 중재 전 7.33점에서 중재 후 7.41점으로 증가하였으나 두 집단 간의 사전-사후 사전의료의향서 지식의 점수변화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1.33, p=.190$ ).

### 4. 논의

호스피스완화의료 교육은 향후 다양한 현장에서 죽음과 임종 간호를 담당할 간호대학생에게 죽음에 대한 바른 인식과 태도를 함양하도록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1,24]. 그러나 간호대학 교육과정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교육은 선택 교과목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해,

Table 2. Homogeneity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49)

Characteristics	Categories	Exp.(n=22)	Cont.(n=27)	$\chi^2$ or t	p
		n(%) or M±SD	n(%) or M±SD		
Sex	Male	4(18.2)	1(3.7)	2.77	.160*
	Female	18(81.8)	26(96.3)		
Age (yrs)	≤22	17(77.3)	25(92.6)	2.32	.219*
	>22	5(22.7)	2(7.4)		
		22.20±1.00	22.00±1.00		
Perceived health status	High	14(63.6)	14(51.9)	0.69	.300
	Medium or Low	8(36.4)	13(48.1)		
Religion	Yes	7(31.8)	9(33.3)	0.01	.910
	No	15(68.2)	18(66.7)		
Experience of bereavement	No	16(72.7)	19(70.4)	0.03	.856
	Yes	6(27.3)	8(29.6)		
Spiritual Well-being	M±SD	2.64±0.48	2.46±0.29	1.53	.136
Knowledge regarding Advance Directives	M±SD	7.05±1.70	7.33±1.18	-0.70	.489

Exp.= Experimental group; Cont.= Control group. \* Fisher's exact probability test

Table 3. Spiritual well-being, Knowledge regarding Advance Directives Before and After Program by Groups.

(N=49)

Variable	Exp.(n=22)			Cont.(n=27)			t	p
	Pretest M±SD	Posttest M±SD	Difference M±SD	Pretest M±SD	Posttest M±SD	Difference M±SD		
Spiritual well-being	2.54 ±0.39	2.64 ±0.40	-0.10 ±0.32	2.46 ±0.29	2.50 ±0.25	-0.04 ±0.22	2.80	.009
Knowledge regarding Advance Directives	7.20 ±1.43	7.61 ±1.20	-0.41 ±1.37	7.33 ±1.18	7.41 ±1.19	-0.07 ±1.00	1.33	.190

Exp.= Experimental group; Cont.= Control group

대상자인 환자와 가족에 대한 신체, 정서, 사회, 영적인 이해와 전인적 평가, 커뮤니케이션 방법, 자신이 가진 죽음에 대한 인식과 철학 등에 대해 교육 및 실습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5].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호스피스 총론 교과목을 통해 호스피스완화의료 교육이 영적 안녕감과 사전의료의향서 지식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교육은 주당 1회 2시간씩 7주 동안 총 14시간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교육 후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영적안녕감에 유의미한 변화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10회기 호스피스간호교육 후 영적안녕이 향상되었다는 연구결과[18]와 일치하였고,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2주간의 호스피스병동실습 교육을 통한 효과 검증에서는 실존적 영적안녕 하위요인만 향상되어 부분적인 일치를 보였다[4]. 이와 같은 결과는 호스피스완화의료 교육내용에서 삶과 죽음에 대하여 다양한 종교와 철학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사

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호스피스 환자의 심리사회적 문제와 요구, 영성의 개념, 영적 고통, 영적 진단, 영적 안녕과 영적 돌봄, 삶의 의미 등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예측된다. 삶에 대한 의미는 인간으로서의 참된 본질을 실현하는 것으로 자신과 삶의 유한성을 인식하고 수용하면서 창조적, 경험적, 태도적 가치를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25], 죽음에 대한 인식은 개인의 인생을 더욱 질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16].

호스피스완화의료 교육을 통해 사전의료의향서 지식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결정법에서는 임종과정을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로 규정하고 있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정규교과목인 호스피스완화의료 교육을 통한 사전의료의향서 지식에 대한 효과 검증 연구가 전무하여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는 없지만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증재 전·후의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결과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12]. 본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인 이유를 살펴보면 노인을 대상으로 사전의료의향서만을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1회 60분, 총 4회기로 진행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7회기에 편성된 구성내용 중 일부로 진행되었기에 이와 같은 결과를 보인 것으로 추측된다. 본 연구에서는 사전의료의향서 지식만을 검증하였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사전의료의향서 효능감, 사전의사결정 의도 및 전반적인 연명의료결정법 등의 교육을 포함한 효과검증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어진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 교육이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시도되었지만, 일지역 일대학에 국한되어 간호대학생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다양한 계층과 연령층을 대상으로 교육의 효과를 규명하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 교육이 영적 안녕감과 사전의료의향서 지식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의 유사실험 연구로 C시에 소재한 일개대학의 3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실험군 22명, 대조군 27명이 최종적으로 참여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8년 09월 20일에서 12월 7일까지 진행되었다. 자료 분석은 SPSS/WIN 21.0 Program을 이용하였으며 Chi-square test, Fisher's exact test, independent t-test, paired t-test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영적 안녕감은 유의한 증가를 보였고( $t=2.80, p=.009$ ), 사전의료의향서 지식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1.33, p=.190$ ). 따라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 교육은 영적 안녕감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규명되어 차후 증재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References

- [1] K. H. Kim, K. D. Kim, H. S. Byun, B. Y. Chung, "Spiritual Well-Being, Self Esteem, and Attitude to Death among Nursing Students", *J Korean Oncol Nurs*, Vol.10, No.1, pp.1-9, 2010.
- [2] M. H. Kim, "The Problems and the Improvement Plan of the Hospice/Palliative Care and Dying Patient's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Act", *Korean J Hosp Palliat Care*, Vol.21, No.1, pp.1-8, Mar. 2018. DOI: <https://doi.org/10.14475/kihpc.2018.21.1.1>
- [3] Korean Society for Hospice and Palliative care, Textbook of Hospice & Palliative care. p.32-47, Koonja, 2018.
- [4] G. D. Kim, "The Effects of Hospice Unit Practice Education on Spiritual Well-being, Attitude to Death, and Hospice Awareness of Nursing Students", *J Korean Oncol Nurs*, Vol.16, No.4, pp.176-184, 2016. DOI: <https://doi.org/10.5388/aon.2016.16.4.176>
- [5] M. Y. Chung, "A Study of relationships among self-esteem, spiritual well-being and mental health to establish spirituality courses for nursing students", *Korean J Intern Med*, Vol.6, No.3, pp.721-741, 2012.
- [6] O. H. Cho, J. S. Han, K. H. Hwang, "Subjective Health Status, Attitude toward Death and Spiritual Well-being of Nurses", *J. of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3, No.10, pp.375-384, 2013. DOI: <https://doi.org/10.5392/JKCA.2013.13.10.375>
- [7] S. H. Jang, *A Structural Analysis on Middle-aged Adult's Meaning in Life and It's Related Variables*, Ph.D dissertation, Catholic Univ. of Pusan, Busan, Korea, pp.68-69, 2015.
- [8] H. S. Kim, "Effect on Influence the Attitude of Death of the Old Ages for Afterlife View and Death Preparation and Spiritual Wellbeing", *J. of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6, No.7, pp.492-503, 2016. DOI: <https://doi.org/10.5392/JKCA.2016.16.07.492>
- [9] S. I. Ji, H. S. You, "The impact of clinical nurses' terminal care attitude and spiritual health on their terminal care stress", *Korean J Hosp and Palliat Care*, Vol.17, No.4, pp.232-240, 2014. DOI: <https://doi.org/10.14475/kihpc.2014.17.4.232>
- [10] M. J. Kim, S. M. Noh, E. J. Ryu, S. M. Shin, "Research Trend Analysis of Do-Not-Resuscitate Decision: Based on Text Network Analysis", *J Korean Oncol Nurs*, Vol.14, No.4, pp.254-264, 2014. DOI: <https://doi.org/10.5388/aon.2014.14.4.254>
- [11] H. J. Kim, M. S. Son, I. S. Kang, "Nurses' Knowledge, Attitudes, Experience, and Confidence toward Advance Directives", *Global Health Nurs*, Vol.9, No.1, pp.19-27, 2019. DOI: <http://dx.doi.org/10.35144/ghn.2019.9.1.19>
- [12] B. R. Kang, M. Y. Hyun, "Effects of the Advance Directives Education Program for Community Dwelling Elderly",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9, No.4, pp.1153-1172, 2019. DOI: <https://doi.org/10.22251/jlcci.2019.19.4.1153>
- [13] B. R. Kim, C. H. Oh, H. K. Kang, "Effect of Death Education Program on Self-Esteem, Spiritual

- Well-Being, and Pain of Adul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7, No.9, pp.156-162, 2016.  
DOI: <https://doi.org/10.5762/KAIS.2016.17.9.156>
- [14] Y. M. Song, K. Yoo, "A study on effects of death education on death anxiety and Life satisfaction, psychological well-being in older adults",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Vol.54, pp.111-134, 2011.  
DOI: <http://dx.doi.org/10.21194/kjgsw.54.201112.111>
- [15] H. D. Song, S. Y. Ahn, Y. H. Kim, H. J. Hwang, S. H. Lee, K. H. Kim, "A Study on the Well-Dying Recognition and Decision of Death before and after Educa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9, No.1, pp.300-310, 2018.  
DOI: <https://doi.org/10.5762/KAIS.2018.19.1.300>
- [16] S. N. Kim, H. J. Kim, S. O. Choi, "Effects of a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ducation Program Including Meaning in Life on Attitudes Toward End-of-Life Care and Meaning in Life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J Korean Acad Soc Nurs Educ*, Vol.17, No.3, pp.454-463, 2011.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2.18.1.071>
- [17] M. Y. Ham, S. H. Lim, S. J. Ko, "The Effect of Hospice Education Including a Death Preparing Education Program on Perception of Death, Attitude of Death and Terminal Care Attitude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7, No.9, pp.361-380, 2017.  
DOI: <https://doi.org/10.22251/ilcci.2017.17.9.361>
- [18] M. O. Yoon, K. H. Yang, "The Effects of Well-dying Education Program-based Hospice Care Education for Nursing Students", *Theology and Society*, Vol.31, No.4, pp.171-198, 2017.  
DOI: <https://doi.org/10.14400/JDC.2019.17.7.255>
- [19] Korean Hospice & Palliative Nurses Association, *Hospice & Palliative care*, Hyunmoonsa, 2015, [527].
- [20] R. F. Paloutzian, C. W. Ellison. *Loneliness, spiritual well-being and the quality of life. Loneliness: a source-book of current theory, research and therapy.* p.224-236, John Wiley & Sones, 1982.
- [21] S. S. Choi, *A correlational study on spiritual wellness, hope and perceived health status of urban adults*, Ph.D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1990.
- [22] J. H. Kang, *A Investigation Study on the Spiritual Health Status of Cancer Patients*, Master's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Korea, 1996.
- [23] S. W. Hong, S. M. Kim, "Knowledge regarding Advance Directives among Community-dwelling Elderly", *J Korean Acad Soc Nurs Educ*, Vol.19, No.3, pp.330-340, 2013.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3.19.3.330>
- [24] S. Y. Kwak, B. S. Lee, "Role Adaptation Process of Hospice Nurses", *J Korean Acad Nurs Adm*, Vol.24, No.2, pp.149-160, 2018.

DOI: <http://dx.doi.org/10.11111/jkana.2018.24.2.149>

- [25] S. N. Kim, S. O. Choi, J. J. Lee, K. I. Shin, "Effects of death education program on attitude to death and meaning in life among university students", *J Korean Soc Health Educ Promot*, Vol.22, pp.141-53, 2005.

김 인 숙(In-Sook Kim)

[정회원]



- 2012년 8월 : 부산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호스피스간호 석사)
- 2018년 2월 : 부산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수료)
- 2018년 9월 ~ 현재 :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간호학, 호스피스·완화간호

장 선 희(Sun-Hee Jang)

[정회원]



- 2007년 2월 : 부산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호스피스간호 석사)
- 2015년 8월 : 부산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6년 3월 ~ 현재 :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의·생명공학, 간호학, 호스피스, 생의 의미